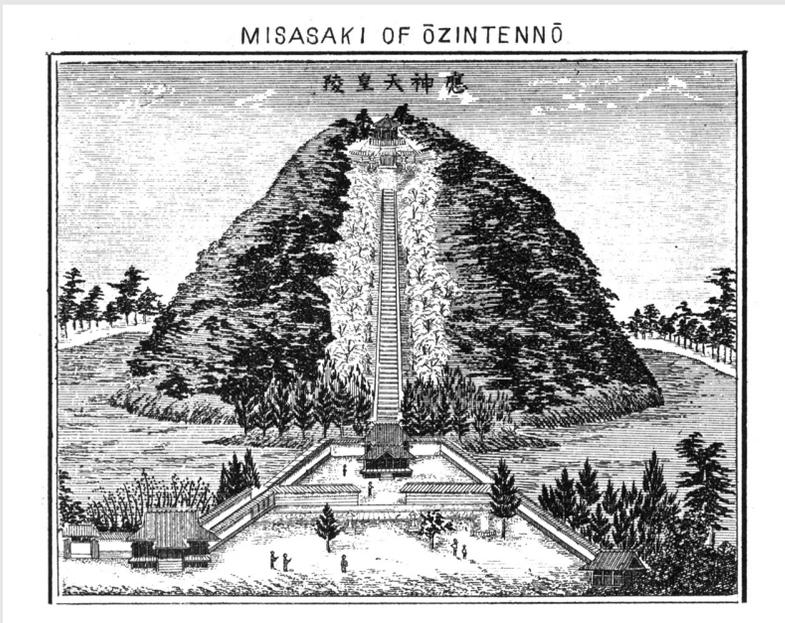


2/ 메이지 일본의 ‘풍경’ 발견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1888~1890)를 중심으로 *

박삼헌



박삼헌(朴三憲)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겸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소장. 일본문화콘텐츠 잡지 『Boon』, 타이완문화콘텐츠 잡지 『Plum Boon』을 기획·발행하고 있다. 전공은 일본근대사이고, 현재 일본역사문화학회 회장이다. 저서로 『근대일본형성기의 국가체제: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 등이 있고,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서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편찬에 참여하여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근현대사』를 한중일 동시 출판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NRF-2008-362-B00006).

1. 시가 시계타카의 『일본풍경론』 재고

풍경이란 무엇일까.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전에 따르면, 풍경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이고,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제시되고 있다.¹

시골 개울가에서 촌부가 빨래를 하던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든 풍경이다.
아직도 흰 눈이 희끗희끗 보이는 산골의 겨울 끝물 풍경이 정답다.
코스모스가 줄을 지어 핀 철로변 풍경은 가을 냄새를 물씬 풍긴다.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합실의 풍경은 무척 을씨년스러웠다.

예문은 시골 개울가·산골·철로변·대합실이라고 적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 어떤 시골 개울가·산골·철로변·대합실을 떠올리면서 일정한 풍경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해보자. 예문을 보고 일정한 풍경을 공유하는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공유하는 풍경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기에 순간 머뭇거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다를 것이라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풍경은 ‘감상의 대상’ 영역에 존재하는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감상’하는 인간 영역에 존재하는 이미지 또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이나 세상의 모습=객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인간의 시선=주체가 풍경의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풍경은 감상하는 인간의 시선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풍경은 발견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글의 주제로 들어가 보자. 그렇다면 ‘일본’이라는 풍경은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일본 풍경론의 계보를 논할 때 반드시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시

1 http://dic.daum.net/word/view_example.do?wordid=kkw000280428(최종 검색일: 2015. 6. 4)

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일본풍경론』(1894.10.27. 초판)이다.² 예를 들어 이효덕은 다음과 같이 『일본풍경론』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한다.

시가의 『일본풍경론』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타마쿠라(歌枕)·우타나도코로(歌名所)³적인 지리의식과 풍토의식을 일소하고, 누구든 자신의 시점으로 어디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풍경미를 제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단일체(單一體)로서의 ‘일본’을 제시함으로써 최초로 거둔 대외전쟁(청일전쟁을 의미함-인용자)의 승리에 열광하던 당시의 민중에게 ‘국가’라는 단일체를, 그리고 국민개병 상황이므로 자신들이 동등하게 쟁취해낸 승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된 민중에게 ‘국민’ 공동체를 의식시키고 내면화하는 단서를 열어주기도 했다. 결국 시가의 『일본풍경론』 출판은 ‘국민’(nation)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풍경이 탄생했다는 포고, 바로 그것이었다.⁴

여기에서 시가의 『일본풍경론』은 청일전쟁과 같은 적대적 타자와의 대립을 배경으로 일본인의 자기정체성과 ‘국토’를 연결시킨, 따라서 ‘국민’(nation)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풍경을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⁵

근대 국민국가는 영토 획정을 토대로 성립한다. 획정된 영토는 국토라

- 2 대표적 연구로는 勝原文夫, 『日本風景論序説 農の美学』, 論創社, 1979; 오그유스탄·벨크, 篠田勝英 訳, 『日本の風景・西欧の景観:そして造景の時代』, 講談社, 1990; 李孝德, 『表象空間の近代: 明治『日本』のメディア編制』, 新曜社, 1996(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加藤典洋, 「武蔵野の消滅」, 『日本風景論』, 講談社, 2000(초출 1989); 亀井秀雄, 「日本近代の風景論: 志賀重昂『日本風景論』の場合」, 小森陽一 外4人編集, 『岩波講座 文学7 つくられた自然』, 岩波書店, 2003; 大室幹雄, 「第1章 日清戦争 大日本精神 愛国心」, 『志賀重昂『日本風景論』精読』, 岩波書店, 2003; 前田愛, 「志賀重昂と日露戦争」, 『幻景の明治』, 岩波文庫, 2006(초출 1973); 溝尾良隆, 「日本の風景観: 18世紀後半~現代」, 『観光学と景観』, 古今書院, 2011 등이 있다. 국내 연구로는 유일하게 표세만, 「자연인식과 일본인의 ‘자기 이미지’ 형성: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일본풍경론』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49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11이 있다.
- 3 박성관의 번역본에는 ‘우타메이쇼우’라 되어 있다. 하지만 와카(和歌)에 등장하는 지명을 의미할 때에는 ‘우타나도코로’라 읽기 때문에, 인용하면서 수정했다.
- 4 인용은 李孝德, 박성관 옮김, 『표상 공간의 근대』, 소명출판, 2002, 291쪽.
- 5 주 2)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가의 『일본풍경론』에서 발견된 내이션의 성격을 청일전쟁과 관련지어 침략주의적 애국주의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메이 히데오(亀井秀雄)만이 메이시시대의 ‘건전한 내셔널리즘’ 지문학(地文學)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리며 국어·국사와 함께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자 국민을 하나로 묶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는 해당 국민이 공유하는 ‘국민적 풍경’으로 이미지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에는 다양한 기후와 해류가 수시로 변하고 수증기가 많으며, 특히 화산암이 많고 해류 침식이 격렬”한 국토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우리나라 풍광의 아름다움”을 명확히 정리한 시가의 『일본풍경론』이야말로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는 일본의 국민적 풍경을 ‘발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⁶

한편 『일본풍경론』에는 풍경을 그린 삽화가 총 41장 실려 있다. 그 대부분은 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 1>은 그중 하나다.⁷

이것은 누가 봐도 후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삽화에는 ‘이상상의 일본’이라는 제목과 ‘아름다운 국토’라는 부제만 제시되고 있다. 후지산을 그리면서도 후지산이라는 고유명이 아니라 아름다운 국토라는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후지산의 아름다움은 일본열도의 어떤 산이라도 지니게 되는 아름다움이 된다. 고유명이 사라지고 익명으로 처리된 후지산 풍경(<그림 1>)이야말로 ‘후지산을 중심으로 하는 풍경 질서로 일본 열도를 재편’ 하려던 『일본풍경론』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림 1>이나 ‘히다(飛騨)의 산중’⁹과 같이 고유명 또는 특정 장소를 제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한 풍경이 있는 반면, 오노(小野) 폭포(<그림 2>)와 같이 고유명을 제시한 삽화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나가노 현(長野縣)에 있는 오노 폭포는 나카센도(中山道)의 기소(木曾) 8경(景) 중 하나로, 아키사토 리토(秋里籬島)가 편찬한 『기소지명소도회』(木曾路名

6 小島烏水「解説」, 志賀重昂, 『日本風景論』, 岩波書店, 1937, 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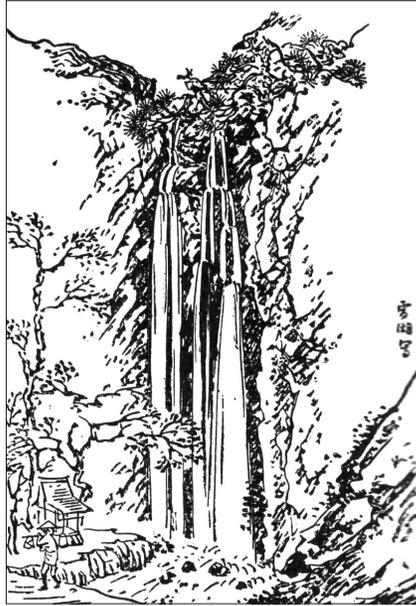
7 시가는 초판에서 증정 14판까지 매번 표지 삽화를 교체했다가, 증정 15판(1903)부터는 삽화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풍경론’이라는 표제만 사용했다. 참고로 <그림 1>은 증정 3판(1895)의 표지 삽화이고, 이후 본문에 삽입되었다.

8 加藤典洋, 「武蔵野の消滅」, 192~194쪽 참조. 후지산과 근대일본의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上垣外憲一, 「富士山の文化史」, 『現代思想』 vol.41-14, 2013. 10; 川村邦光, 「富士山の近代とディスコース」, 『現代思想』 vol.41-14, 2013. 10을 참조할 것. 쇼와시대의 후지산 내셔널리즘에 관한 한국의 연구로는 이경희, 「‘일본의 상징’으로서의 후지산: 그 표상을 둘러싼 또 하나의 시좌」,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4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3이 있다.

9 志賀重昂, 『新装版 日本風景論』, 255쪽.



〈그림 1〉 아름다운 국토
(志賀重昂, 『新裝版 日本風景論』, 講談社, 2014, 18쪽)



〈그림 2〉 오노(小野) 폭포
(志賀重昂, 『新裝版 日本風景論』, 講談社, 2014, 39쪽)

所図會, 1805)에도 소개된 장소다.¹⁰ 이것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에도 시대에 다수 출판된 ‘~명소도회’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각주 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소(名所)를 ‘나도코로’로 읽으면, 와카에 나오는 지명이 된다. 와카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난 곳이라 해도 나도코로(名所)가 아닌 고적(古跡)이 된다. 나도코로는 어디까지나 와카 속에 등장하는 말로, 실제 그곳에 가서 와카를 읊은 것이 아니라, 와카의 내용이나 이미지에 맞춰서 읊어지는 지명에 불과한 관념적 세계다. 그러던 것이 에도시대에 들어 실제로 나도코로를 방문하게 되면서 명소는 점차 와카의 관념적 세계의 산물인 나도코로에서 실제로 찾아가서 즐기는 행락지가 되었다. 이때부터 명소는 ‘메이쇼’라 불리기 시작했다.¹¹ 『미야코명소도회』

10 原田幹 校訂, 『木曾路名所圖會』, 大日本名所圖會刊行會, 1919, 268쪽. 이 외에도 케이사이 에이센(溪齋英泉)과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가 그린 우키요에 『기소카이도 69차(木曾街道六十九次)』(1835~1837)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11 山本光正, 『江戸見物と東京觀光』, 臨川書店, 2005, 12쪽.

(都名所図会, 1780)는 나도코로가 아닌 메이쇼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출판된 최초의 ‘~명소도회’다. 이것이 약 4천 부 정도 팔릴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자, 주요 가도의 메이쇼를 안내하는 ‘~명소도회’ 시리즈가 연이어 출판되었다.¹² 그 인기의 비결은 사실성이 풍부하고 묘사가 세밀한 삽화다. 이런 의미에서 ‘~명소도회’는 메이쇼라는 사실적 풍경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이상과 같은 ‘~명소도회’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앞에서 이효덕이 정리한 내용, 즉 ‘우타마쿠라·우타나도코로적인 지리의식과 풍토의식’이 가보지도 않고 상상하는 관념적 세계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의 부정이 곧 시가의 『일본풍경론』에서 발견된다고 간주되는 ‘누구든 자신의 시점으로 어디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익명의) 풍경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타나도코로적 풍경은 사실적 묘사가 풍부한 메이쇼적 풍경에 의해서 이미 부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부정하는 대상은 우타나도코로적 풍경이 아니게 된다. 이것이 시가의 『일본풍경론』에 <그림 1>과 같은 익명적 풍경과 <그림 2>와 같은 메이쇼적 풍경이 공존하는 이유다. 물론 <그림 2>에는 메이쇼적 풍경에 적혀 있던 와키는 사라지고, “후에쓰산(風越山)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화강암을 뚫고 낭떠러지를 휘감아 폭포를 이룬다”는 과학적 설명이 달려 있다. 따라서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메이지시대의 일본인 다수가 떠올리는 국토를, 즉 익명성의 후지산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적 풍경을 ‘발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후지산을 제외하고는 <그림 2>와 같이 메이쇼적 풍경의 특성을 반영한 삽화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국민적 풍경이 메이쇼적 풍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

12 本渡章, 『京都名所むかし案内』, 創元社, 2008, 11~12쪽. 구체적으로는 『야마토(大和) 명소도회』(1791), 『이즈미(和泉) 명소도회』(1796), 『셋쓰(摂津) 명소도회』(1796), 『도카이도(東海道) 명소도회』(1797), 『이세참궁(伊勢参宮) 명소도회』(1797), 『가와치(河内) 명소도회』(1801), 『기지로(木曾路) 명소도회』(1805), 『에도(江戸) 명소도회』(1836), 『오와리(尾張) 명소도회』(1844), 『젠코지도(善光寺道) 명소도회』(1849) 등이 있다.

13 西野由紀, 「先達はあらまほしき: 『名所図会』と旅人」, 『国文学論叢』, 龍谷大学国文学会, 2007, 89쪽.

음을 말해준다.

이 글에서는 시가의 『일본풍경론』보다 6년 먼저 출판된 여행안내서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日本名所図会, 이하 『일본명소』)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메이지시대에 ‘발견’되는 일본 풍경이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일본 풍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일전쟁을 시가의 『일본풍경론』의 종속변수로 이해하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1880년대 메이지와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의 등장

1) 시간적 전제: 새로운 내셔널리즘의 계절

1880년대에는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77)을 끝으로 불평사족의 반정부 움직임이 일단락되고, 메이지 14년 정변(1881)으로 대일본제국헌법 발포(1889)와 제1회 중의원 총선거(1890)가 예정되면서 제한적이거나 참정권, 즉 국민¹⁴의 권리가 확보되었다.¹⁵ 자유민권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이라는 자기인식이 보편화되고 그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예고된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타이완 침공(1874)과 강화도사건(1875)을 거치면서 만국공법에 따른 일본국의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관점이 유포되기 시작했다.¹⁶ 이것이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등 조선을 둘러싼 청과

14 ‘대일본제국헌법’ 체제 아래에서는 국민이 아니라 신민(臣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고, 학술적으로도 그 전제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신민이 주로 사용된다. 필자도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럼에도 그 신민은 이전의 하쿠쇼(百姓)와 달리 국가적 과제를 자발적 또는 능동적으로 떠안는 존재이거나/존재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5 ‘대일본제국헌법’에서 선거인은 직접국세 15엔 이상 납부한 25세 이상의 남자, 피선거인은 동일한 조건의 30세 이상 남자에게만 주어졌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은 제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약 45만 3천 명으로, 총인구 약 4천만 명 중 1.1%에 불과하다(鳥海靖, 『日本近代史講義: 明治立憲制の形成とその理念』, 東京大学出版会, 1988, 255쪽).

16 박삼현,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박삼현, 「메이지 초년의 전쟁과 프로파간다: 1874년 타이완(台灣) 침공 관련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2호, 동북아역사재단, 2013 참조.

의 대립을 거치면서 문명개화한 ‘일본’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국가의식으로 구체화되었다.¹⁷ 요컨대 1880년대는 참정권이라는 국민(nation) 권리(=민권)와 아시아를 벗어난 문명국 건설이라는 국가(nation) 목표(=국권)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이런 가운데 1880년대 후반에 조약 개정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등장하자 메이지 초기의 내셔널리즘과 차별화된, 민권과 국권이 유기적 조합을 이루는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등장했다. 그 양상을 당시의 사상적 흐름으로 거칠게 정리하면,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평민주의는 전자를 중시하는 입장이고,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의 국수주의와 구가쓰난(陸羯南)의 국민주의는 후자를 중시하는 입장이다.¹⁸ 이들의 공통점으로 루메이칸(鹿鳴館)이 상징하는 정부의 서구화 정책에 반대하고 ‘일본’을 자각하자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1880년대는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등장한 시기였고, 이를 배경으로 『일본명소』가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일본명소』를 단순한 여행안내서가 아니라, 1880년대의 내셔널리즘이 자각하려는 ‘일본’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독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일본인’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1880년대의 그 어떤 사상서에 못지않은 사상서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평가는 3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1880년대의 ‘~명소도회’ 출판 붐을 알아보자.

2) 물질적 토대: ‘~명소도회’ 출판 붐

〈표 1〉은 메이지시기에 출판된 ‘~명소도회’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41권 중 절반에 가까운 48.8%가 1880년대에 출판되었고, 그중 45%

17 박삼현, 「메이지초기 대외팽창론의 한 유형: 아라이 쇼고(新井章吾)와 오사카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6호, 2006 참조.

18 岩崎允胤, 『日本近代思想史序説』[明治期後編] 上, 新日本出版社, 2004, 19~39쪽 참조. 도쿠토미는 1887년 민유샤(民友社)를 설립하고 『국민의 벗』(國民之友)을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890년부터는 『국민신문』을 간행했다. 미야케는 1888년 세이쿄샤(正教社) 결성에 동참하고, 평론잡지 『일본인』 간행에 관여했다. 구가는 1888년 신문 『도쿄전보』를 발행하고, 1889년부터는 『일본』으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했다. 참고로 시가는 세이쿄샤에서 활동한다.

〈표 1〉 메이지시절(1868~1912)에 출판된 ‘~명소도회’ 관련 서적

시기	서지사항
1870년대 (2.4%)	① 岡部啓五郎, 大沢南谷 画, 『東京名勝図会』上·下, 丸屋善七, 1877
1880년대 (48.8%)	① 岡田啓·野口道直, 『尾張名所図会』後編6卷, 片野東四郎, 1880 ② 橋本澄月, 『京都名勝一覽図会』, 風月堂, 1880 ③ 谷壯太郎, 『掌中東京名所図絵』, 旭登堂, 1881 ④ 遠藤茂平, 『京都名所案内図会』乾·坤, 正宝堂, 1881 ⑤ 中沢祚能, 『銅板袖珍日光名所図会』上·下, 文敬堂, 1882 ⑥ 馬場文英, 『三府名所獨家内図会』1~4, 細川清助, 1883 ⑦ 兒玉爾七, 『開化東京名勝図会』, 大橋堂, 1884 ⑧ 青木恒三郎, 『世界旅行 万国名所図絵』全7卷, 高山堂, 1886 ⑨ 石田旭山, 『京都名所案内図会』上·下, 正宝堂, 1887 ⑩ 市岡正一, 『日光山名勝図会』, 博聞社, 1888 ⑪ 豊島海城, 『熱海温泉図会』, 亀谷竹二, 1888 ⑫ 上田維曉, 『内國旅行 日本名所圖繪』全7卷, 青木嵩山堂, 1888~1890 ⑬ 中野了隨, 『東京名所図絵』, 小川尚栄堂, 1890 ⑭ 原田真一, 『東京名所図絵』, 双々館, 1890 ⑮ 上田維曉, 『伊勢參宮名所図絵: 一名·東海道鐵道名所案内』, 青木嵩山堂, 1890 ⑯ 米津謙治郎, 『三重県名所図絵』, 伊勢新聞社, 1890 ⑰ 尾関トヨ, 『万国名所図会』, 豊栄堂, 1890 ⑱ 榊原英吉, 『市内漫遊大阪名所図絵』, 藜光堂, 1890 ⑲ 樋口正三郎, 『大日本海陸名処図会』, 赤志忠雅堂, 1890 ⑳ 木戸篤敬, 『大日本汽車旅行名所図会』, 杉本甚助, 1890
1890년대 (29.3%)	① 山陽鐵道会社運輸課, 『山陽鐵道旅客案内: 一名·山陽道名所図絵』, 図書出版社, 1891 ② 片岡賢三, 『帝國京都名所図絵』, 風月堂, 1891 ③ 北村長太郎, 『岡山名所図会』, 細謹舎, 1892 ④ 浅井広信, 『京都名所図会』上·下, 鳥居又七, 1893 ⑤ 牧金之助, 『東京近傍遊覽図絵』, 牧金之助, 1893 ⑥ 小林元之助, 『新撰京都名所図絵』, 寺田熊次郎, 1893 ⑦ 斎藤長秋, 長谷川雪旦 画, 『江戸名所図会』, 博文館, 1893 ◆ ⑧ 青木恒三郎, 『清国名所図絵: 内地旅行』, 青木嵩山堂, 1894 ⑨ 三輪文次郎, 『名古屋名所図会』, 三輪文次郎, 1895 ⑩ 志水鳩峰, 『京都名勝図絵』上·下, 風月堂, 1895 ⑪ 『冲繩風俗図絵』, 東陽堂, 1896 ⑫ 西村寅次郎, 『東京名所図絵』, 西村寅次郎, 1898
1910년대 (19.5%)	① 石倉重繼, 『真宗名所図会』, 尾呂志屋書店, 1900 ② 秋里舜福, 竹原信繁 画, 『都名所図会』, 西東書房, 1901 ◆ ③ 吾妻健三郎, 『東海道名所図会』, 東陽堂, 1902 ◆ ④ 川村博, 谷文晁 画, 『日本名山図会』天·地·人, 東陽堂, 1903 ⑤ 石倉重繼, 『成田名山所図会』, 博文館, 1903 ⑥ 石倉重繼, 『高野山名所図会』, 博文館, 1904 ⑦ 清水新兵衛, 『新撰近江名所図会』, 文泉堂, 1909 ⑧ 秋里籬島, 『東海道名所図会』上·下, 吉川弘文館, 1910

주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근대라이브러리(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http://kindai.ndl.go.jp/>)에서 図会和 図絵를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최종 검색일: 2015. 6. 4).

2) ◆ 표시는 에도시대의 명소도회가 복각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대일본철도선로 지도(木戶篤敬, 『大日本汽車旅行名所図會』, 杉本甚助, 1890)

는 1890년 한 해에 출판되었다. 1894년 6월 청일전쟁 발발 이전의 출판은 68.3%다. 이것은 1880년대에 들어서 ‘~명소도회’ 출판이 본격화되고, 1890년에 그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들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1880년대에 들어서 ‘~명소도회’ 출판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1880년대에 본격화된 철도 건설에 있다. 1881년 니혼철도(日本鐵道)를 필두로 각 지역에 사철(私鐵)이 설립되고, 1889년 도카이도(東海道) 전 노선이 개통되면서 지역간 이동이 수월해진 것이다. 이동의 수월함은 우선 도쿄, 교토, 닛코(日光), 이세신궁 등과 같이 인지도가 높은 명소도회 출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아타미온천(熱海温泉) 명소도회』(〈표 1〉-1880년대⑩), 『오카야마(岡山) 명소도회』(〈표 1〉-1890년대③), 『진종(真宗) 명소도회』(〈표 1〉-1910년대①)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명소도회의 출판도 철도의 발달로 다양한 지역에 접근이 가능해진 결과일 것이다.

한편, 철도 발달에 따라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이어지는 노선을 매개로 일본이 시각적으로 구체화된다(〈그림 3〉). 필자가 아는 한, 적어도 『일본명소』는 메이지시기의 ‘~명소도회’ 중 내국이나 일본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경우다. 내국이라는 경계 인식을 ‘일본’으로 규정하고, 그 ‘일본’ 안의 메이쇼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한 최초의 경우다. 『일본명소』는 전 7권이 완결된 1890년에 제3권이 1년도 안 돼서 증보 출판되고, 제

〈표 2〉 각권 내용과 발행년월

권	내용	발행년월
제1권	五畿内	1888.10.03
제2권	東海道	1889.01.27
제3권	東海道続 一名東京 及 近傍名所独案内	1889.05.09
제4권	東山道	1889.08.27
제5권	陸前 陸中 陸奥 北海道 北陸道	1889.11.29
제6권	山陽道 山陰道	1890.04.12
제7권	南海道 西海道	1890.08.21

1권도 증보 재판될 정도로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표 2〉).

그렇다면 다른 ‘~명소도회’에 비해 『일본명소』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일본명소』 제3권이 출판된 직후의 신문 광고다.

바야흐로 도카이도 철도가 완성되면 도쿄의 메이쇼를 찾는 제군이 많아질 것이다. 이에 본권은 특히 도쿄 및 근교의 안내를 명기하여 안내자 없이 메이쇼를 방문할 수 있다. 가나자와 8승(勝)은 물론 요코스카(横須賀), 가마쿠라(鎌倉), 에노시마(江之島), 하코네(箱根), 아타미(熱海)의 나나유(七湯) 등에 대한 길 안내가 상세하므로, 도쿄로 놀러온 제군자는 반드시 한 권 구입하여 편리하게 정확한 내용을 알기 바란다. 유람하지 않는 제군은 독좌만유(独座漫遊)의 간편법을 알도록 하라. 전국 철도 시각표 증명.¹⁹

여기에서는 ‘도쿄 메이쇼를 찾는 제군’만이 아니라 ‘유람하지 않는 제군’도 독자로 상징하고 있다. 이후의 광고에서도 반복되는 카피는 “앉아서 내지를 만유하다”²⁰다. 『일본명소』는 실사한 듯 세밀하게 그린 동판 삽화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독자는 동판 삽화의 시선으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내국의 메이쇼를 실제 본 것처럼 ‘상상’할 수 있고, 실제 여행에서는 그

19 『朝日新聞』, 1889. 5. 15, 4면.

20 『朝日新聞』, 1891. 9. 26, 6면.

상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증정된 ‘전국 철도 시 각표’의 수치화된 시간은, 기차 이용객에게는 수치화된 거리를 체험하도록, ‘앉아서 내지를 만유’하는 독자에게는 그 수치화된 거리를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결과 『일본명소』의 독자들은 제공된 메이쇼의 목록과 삽화를 매개로 내국을 경험하고 상상하며 그 거리감을 계산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여행안내서만이 아니라 독자가 내국의 메이쇼를 경험하고 상상함으로써 ‘일본’을 인식하게 하는 심상지리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명소』의 성격이 다른 어떤 ‘~명소도회’보다도 1880년대의 새로운 내셔널리즘과 조용한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이제 『일본명소』가 발견하고 독자들이 공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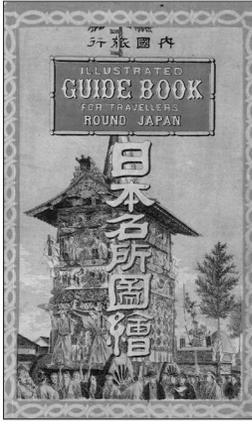
3.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가 발견한 메이지 일본의 풍경

1) 편집의 특징

『일본명소』의 저자는 우에다 분사이(上田文齋)이고, 교정자는 아오키 고사부로(青木恒三郎)다. 우에다 집안은 대대로 오사카의 유의(儒醫)이고, 본인은 난학을 공부했다. 본업과 관련된 저술로는 『소학인체문답』(小学人体問答, 1878)이 있다. 이 외에도 『이세참궁명소도회: 일명·도카이도철도명소안내』(伊勢参宮名所図会: 一名·東海道鐵道名所案内)(<표 1>-1880년대⑤)가 있다.

아오키는 오사카의 인쇄업자로, 직접 『세계여행 만국명소도회』(1885~1886)와 『내지여행 청국명소도회』(1894)를 출판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필과 기획력을 갖춘 유능한 편집자다(<표 1>-1880년대⑥, 1890년대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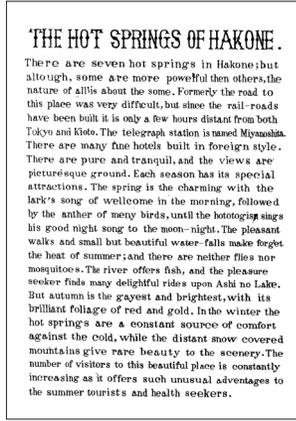
『일본명소』의 표지에는 “Illustrated Guide Book for Travellers round Japan”이라는 영어 제목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그림 4>). 본문은 일본어로 기술되어 있지만, 삽화는 예를 들어 ‘황거어문’(皇居御門)이라는 제목과 함께 반드시 ‘The gate of Mikado’s place Kyoto’를 병기하고 있다(<그림 5>).²¹ 하코네 온천을 설명하는 영문도 있고(<그림 6>), 본문 중에서 호텔명은 반드시



〈그림 4〉 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해 영문을 병기하고 있는 예 (『일본명소』 제1권 표지)



〈그림 5〉 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해 영문을 병기하고 있는 예 (『일본명소』 제1권, 2~3쪽)



〈그림 6〉 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해 영문을 병기하고 있는 예 (『일본명소』 제3권, 4쪽)

영어를 병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도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초기 기차표에 일본어 이외에 영어·독어·불어가 병기되었고, 1876년부터는 영어만 병기되고 있었으므로,²² 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한 영어 병기 편집은 충분히 현실성을 지닌다. 다만, 1899년에 이르러서야 외국인인 ‘내국’을 완전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므로,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당시 영어가 서구문명을 상징하는 기호였음을 고려한다면, 영어를 병기한 표지 및 본문 삽화는 다른 ‘~명소도회’에 비해 『일본명소』가 문명적·과학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일본명소』의 서술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내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간행 순서는 긴키(近畿)→도카이도(東海道)→도산도(東山道)→홋카이도(北海道)→호쿠리쿠도(北陸道)→산요도(山陽道)→산인도(山陰道)→난카이도(南海道)→사이카이도(西海道)다(〈표 2〉 참조). 따라서 독자의 시

21 이러한 편집은 아오키가 1886년에 출판한 『세계여행 만국명소도회』(〈표 1〉-1880년대⑧)와 동일하다. 참고로 『일본명소』에서는 도료를 설명하면서, 본문은 ‘황거’, 삽화 제목은 ‘궁성(宮城)’이라는 용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다(上田維晁, 『內國旅行 日本名所圖繪』 第3卷, 青木嵩山堂, 1888, 55~57쪽).

22 E. 사이텐스터커 지음, 허호 옮김, 『도쿄이야기』, 이산, 1997,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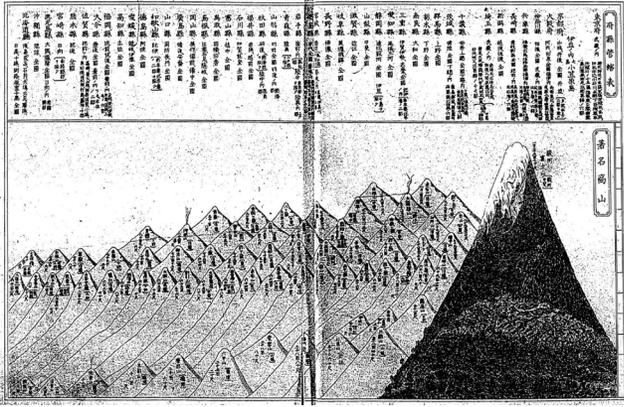
선은 긴키에서 시작해서 간토(關東)와 도호쿠(東北)를 지나 홋카이도로 이동했다가 주부(中部) 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긴키를 지나 주고쿠(中國)와 시코쿠(四國)를 거쳐 규슈와 오키나와에 머문다. 일본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간토(=도쿄)가 아니라 간사이를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다시 서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지시기 ‘~명소도회’에서 도쿄가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17.1%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가 높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간사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명소』의 편집 및 간행은 당시로서는 이색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일본명소』의 독자를 일본인/외국인 중에서 간사이 거주자로 상정한다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참고로 저자와 편집자, 출판자 모두 오사카 거주자라는 점, 『일본명소』를 ‘황거어문’과 ‘시신덴’(紫宸殿)으로 시작하는 점(〈그림 5〉) 등을 통해, 도쿄(=간토)에 대한 이들의 대립의식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는 긴키를 중심으로 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이도(街道)를 대단위, 구니(國)를 소단위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오키는 『일본명소』 제1권을 출판한 직후 자매편으로 『분방상밀 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圖, 이하 『일본지도』)를 출판했는데, 여기에도 가이도와 구니를 단위로 하는 ‘대일본전도’를 신고 있다.²³ 각 구니의 게재 순서도 『일본명소』와 동일하다.

1871년 폐번치현 이후 몇 차례 부현(府縣)의 통폐합이 있기는 했어도, 적어도 『일본명소』와 『일본지도』가 출판된 1888년은 부현회(府縣會)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각 부현의 경계선과 명칭은 정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전도』에는 각 구니가 어느 부현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부현관할표’가 수록되어 있다(〈그림 7〉). 따라서 『일본명소』와 『일본지도』는 의도적으로 가이도와 구니를 단위로 ‘일본’을 시각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여전히 익숙한 구니 명칭을 편집에 반영한

23 分邦詳密日本地圖, 青木嵩山堂, 1888, 1쪽.



〈그림 7〉(위) 부현관할표『분방상밀 일본지도』(分邦詳密日本地図), 青木嵩山堂, 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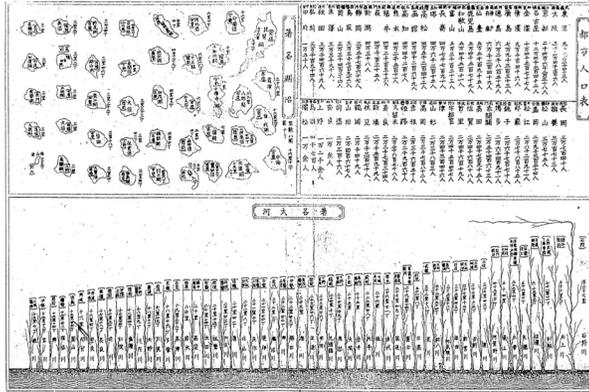
〈그림 8〉(오른쪽) 대일본 동온선, 풍향 및 기상도(志賀重昂, 『新裝版 日本風景論』, 講談社, 2014, 31쪽)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가의 『일본풍경론』에 수록된 ‘대일본 동온선, 풍향 및 기상도’(〈그림 8〉)와 비교해보면, 동일하게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를 시각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이라는 단일한 단위가 ‘상상’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에도시대의 분절적 영토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전도』에서 ‘저명고산’(著名高山, 그림 7), ‘저명호소’(著名湖沼)와 ‘저명대하’(著名大河, 〈그림 9〉)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후지산을 필두로 ‘일본’의 산들이 높이 순으로, 비와호(琵琶湖)를 필두로 ‘일본’의 호수들이 넓이 순으로, 이시가리천(石狩川)을 필두로 ‘일본’의 강들이 길이 순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일본을 구성하는 자연 요소 중 일부를 수치화라는 방식으로 그 서열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명소』도 본문에서 산·호수·강의 수치를 반드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후지산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연 풍경의 배경으로 후지산을 자주 배치하고 있다(〈그림 10〉).

또한 시가의 『일본풍경론』은 중국이나 조선과 다른 일본 풍경으로 ‘화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일본명소』에서도 발견된다. 우선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제시하는 화산의 의미를 확인해보자.



〈그림 9〉 도시인구수와 호수·강의 면적 및 길이를 수치로 표기하여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삽화(青木恒三郎, 『分邦詳密日本地図』, 青木嵩山堂, 1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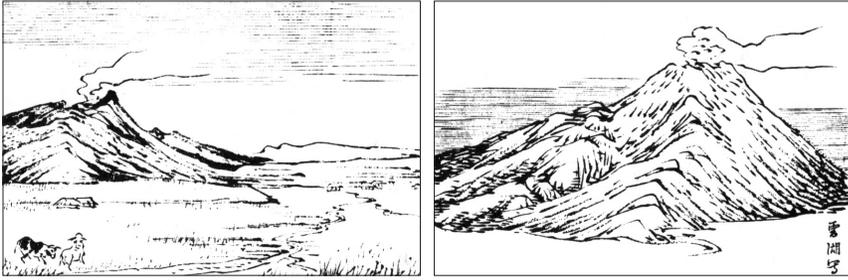


〈그림 10〉 자연 풍경의 배경으로 후지산을 배치(『일본명소』 제2권, 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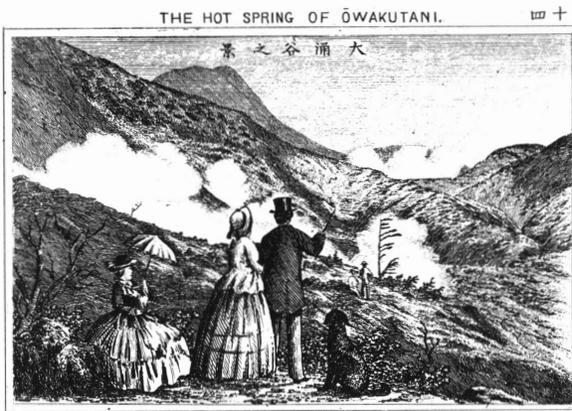
일본의 가인(歌人)은 단순히 ‘산’으로서 화산암 산악 또는 활화산을 음미하거나 풍회(風懷)를 기탁할 뿐, 그 화산암의 우람하고 변화무쌍하며 장대함으로 세상에 지극히 큰 볼거리라는 점은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²⁴ … 일본은 라복스(ラボック)가 [영국 풍경으로] 절찬한 것들을 망라하고, 여기에 세상에 웅대한 화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활화산이지 않은 봉우리가 없을 정도이기에 [라복스가] ‘전 세계에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풍경’이라 절찬한 것은 바로 일본이 아닌가.²⁵

24 志賀重昂, 『新装版 日本風景論』, 95~98쪽.

25 志賀重昂, 『新装版 日本風景論』, 179~180쪽.



〈그림 11〉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화산의 풍경(志賀重昂, 『新裝版 日本風景論』, 講談社, 2014, 281쪽)



〈그림 12〉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산 ('일본명소' 제3권, 14쪽)

이와 같은 화산에 대한 가치 부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산의 풍경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11〉). 들판을 배경으로 높이 솟아오른 산 정상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풍경이야말로 조선이나 중국과 다른 ‘일본’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화산의 수증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본명소』에서 산이나 온천을 설명하면서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12〉). 양복을 입고 애견을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이 아니라 서양인으로 추정되는 세 명이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산 풍경이 서양인이라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이국적/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본’의 풍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바로 일본 아닌가’라는 배타적·적극적 풍경 인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적어도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풍경을 스

스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주변에 존재하던 자연이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일본의 풍경으로 인식되고, 이것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타자와 구별되는 일본인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후지산이나 화산 등과 같은 일본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메이쇼에서 ‘국민’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토대이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2) ‘발견’된 풍경들

이제 『일본명소』가 발견한 국토 풍경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은 『일본명소』 전 7권에 실린 삽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제는 크게 자연 풍경과 인공 풍경으로 구분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경은 건축이다(35.5%). 건축에는 에도시대의 성곽·사찰·신사, 근대 이후의 관청·기차역, 철교, 공장, 터널 등을 포함시켰다.²⁷ 이어서 산(20.2%)과 바다(16.2%) 순으로 비중이 높다.²⁸ 이 외에 거리(12.3%), 온천(4%), 생활(3.1%)이 있다.

건축 중 가장 많은 것은 신사인데, 신사 풍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신사를 상징하는 도리이(鳥居)를 크게 부각시키는 경우(<그림 13>), 또 하나는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문양을 부각시키는 경우(<그림 14>)다. 비중으로 보면 전자가 많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본문에는 관폐대사(官幣大社),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 향사(郷社) 등 국가가 천황과의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서열화한 신사별 등급이 반드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신도에 의한

26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일본명소』와 『일본풍경론』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가가 『일본명소』를 참조했다는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은 이 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이 두 책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한다기보다, 『일본풍경론』이 등장할 수 있는 역사적 토대 및 전제로서 『일본명소』를 위치시킴으로써 『일본풍경론』 등장의 전제조건으로 청일전쟁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으므로, 직접적인 관련성 제시는 논증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7 산 속의 신사와 사찰이 원경으로 제시되었을 때에는 산으로, 신사와 사찰의 일부를 중심으로 하면서 근경으로 제시했을 때에는 건축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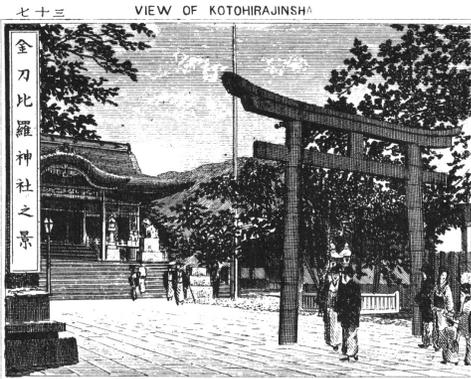
28 바다에는 섬을 원경으로 조망하는 풍경만이 아니라 해변·항구·어촌 등의 풍경도 포함시켰다.



〈그림 13〉 신사를 상징하는 도리이(鳥居)를 크게 부각한 삽화
 (『일본명소』 제1권, 9쪽)



〈그림 14〉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 문양을 부각한 삽화
 (『일본명소』 제1권, 24쪽)



〈그림 15〉 신불분리정책으로 쇠퇴한 신사
 (『일본명소』 제7권, 37쪽)



〈그림 16〉 나라호텔 로비의 도리이 장식(Nara Hotel HP)

신사의 등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황제를 내면화한다. 물론 『일본명소』에는 아와지노쿠니(淡路国)에 있는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神社)와 같이 민간 신앙에 속하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의 신불분리정책으로 쇠퇴한 신사도 등장한다(〈그림 15〉). 그러나 여기에서도 신사라는 공간임을 나타내기 위해 도리이가 부각된다. 국가신도의 신사와 민간 신앙의 신사의 공통점은 도리이라는 존재인 것이다. 그 결과 『일본명소』에서 도리이가 포함된 풍경은 신사라는 종교 공간만이 아니라 ‘일본’의 풍경이 된다. 훗날 일본의 고향으로 주목받은 나라(奈良)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1909년 건립된 나라호텔의 로비에는 앞면을 도리이로 장식한 벽난로가 있다(〈그림 16〉). 여기에

〈표 3〉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의 지역별 삽화 내용

지역	자연			인공			온천	기타	합계	
	산	강·호수	바다	거리	건축	생활				
기나이 (畿内) (12.6%)	야마시로노쿠니(山城国) / 교토	5	1	-	4	29	-	-	3	42
	셋쓰노쿠니(摂津国) / 오사카	5	-	1	5	12	-	2	1	26
	이즈미노쿠니(和泉国)	2	-	2	-	1	1	-	-	6
	가와치노쿠니(河内国)	3	2	-	-	4	-	-	3	12
	야마토노쿠니(大和国)	4	3	-	-	4	-	-	1	12
	소계	19	6	3	9	50	1	2	8	98
도카이도 (東海道) (26.6%)	이가노쿠니(伊賀国)	1	1	-	-	3	-	-	-	5
	이세노쿠니(伊勢国)	3	1	3	4	9	1	-	-	21
	시마노쿠니(志摩国)	-	-	3	-	-	1	-	-	4
	오와리노쿠니(尾張国)	1	-	-	6	6	1	-	1	15
	미카와노쿠니(三河国)	2	-	-	1	4	-	-	-	7
	도토우미노쿠니(遠江国)	1	-	-	1	5	-	-	-	7
	스루가노쿠니(駿河国)	6	-	1	1	7	-	-	-	15
	가이노쿠니(甲斐国)	7	2	-	1	4	-	-	-	14
	이즈노쿠니(伊豆国)	-	-	2	2	1	-	3	-	8
	사가미노쿠니(相模国)	3	1	7	11	7	1	2	3	35
	무사시노쿠니(武蔵国) / 도쿄	1	4	4	13	28	1	-	3	54
	아와노쿠니(安房国)	-	-	4	-	-	-	-	-	4
	가즈사노쿠니(上総国)	-	-	2	-	3	-	-	-	5
	시모우사노쿠니(下総国)	-	-	2	-	5	-	-	-	7
히타치노쿠니(常陸国)	1	-	2	-	3	-	-	-	6	
소계	26	9	30	40	85	5	5	7	207	
도산도 (東山道) (18.3%)	오우미노쿠니(近江国)	5	8	-	2	4	-	-	-	19
	미노노쿠니(美濃国)	2	-	-	2	3	1	-	-	8
	히다노쿠니(飛騨国)	1	1	-	1	2	1	-	-	6
	시나노노쿠니(信濃国)	8	1	-	-	2	-	1	-	12
	고즈케노쿠니(上野国)	3	1	-	1	4	-	5	-	14
	시모쓰케노쿠니(下野国)	6	4	-	1	8	-	-	1	20
	이와키노쿠니(磐城国)	4	-	1	-	-	-	-	-	5
	이와시로노쿠니(岩代国)	1	1	-	1	4	-	1	-	8
	우젠노쿠니(羽前国)	6	-	1	1	-	-	-	-	8
	우고노쿠니(羽後国)	2	-	2	-	-	-	-	-	4
	리쿠젠노쿠니(陸前国)	2	2	5	4	9	-	-	1	23
	리쿠추노쿠니(陸中国)	1	1	1	-	2	-	1	-	6
	리쿠오노쿠니(陸奥国)	-	-	-	2	7	-	-	-	9
소계	41	19	10	15	45	2	8	2	142	

〈표 3〉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의 지역별 삽화 내용(계속)

지역	자연			인공			온천	기타	합계	
	산	강·호수	바다	거리	건축	생활				
홋카이도 (北海道) (2.3%)	오시마노쿠니(渡島国)	-	-	1	2	2	1	-	-	6
	이부리노쿠니(胆振国)	-	1	1	-	-	2	1	-	5
	히다카노쿠니(日高国)	-	-	-	-	-	1	-	-	1
	도카치노쿠니(十勝国)	-	-	-	-	-	-	-	-	-
	구시로노쿠니(釧路国)	-	-	-	-	-	-	-	-	-
	네무로노쿠니(根室国)	-	-	1	-	-	-	-	1	2
	지시마노쿠니(千島国)	-	-	-	-	-	-	-	-	-
	기타미노쿠니(北見国)	-	-	-	-	-	-	-	-	-
	데시오노쿠니(天塩国)	-	-	-	-	-	1	-	-	1
	이시카리노쿠니(石狩国)	-	-	1	-	2	-	-	-	3
	시리베시노쿠니(後志国)	-	-	-	-	-	-	-	-	-
	소계	-	1	4	2	4	5	1	1	18
호쿠리쿠 도 (北陸道) (7.6%)	사도노쿠니(佐渡国)	-	-	3	-	1	1	-	-	5
	에치고노쿠니(越後国)	5	1	3	4	2	1	1	-	17
	엿추노쿠니(越中国)	2	1	1	2	1	-	-	-	7
	노토노쿠니(能登国)	1	-	3	-	-	-	-	-	4
	가가노쿠니(加賀国)	1	2	1	2	3	-	2	-	11
	에치젠노쿠니(越前国)	1	-	2	1	8	-	-	-	12
	와카사노쿠니(若狭国)	-	1	2	-	-	-	-	-	3
	소계	10	5	15	9	15	2	3	-	59
산요도 (山陽道) (10.4%)	하리마노쿠니(播磨国)	4	1	4	2	17	2	2	-	32
	미마사카노쿠니(美作国)	1	-	-	-	1	-	2	1	5
	비젠노쿠니(備前国)	1	-	4	2	2	-	-	-	9
	빗추노쿠니(備中国)	3	-	2	-	-	-	-	-	5
	빈고노쿠니(備後国)	2	-	2	-	3	-	-	-	7
	아키노쿠니(安芸国)	2	-	1	2	4	-	-	-	9
	스오노쿠니(周防国)	1	-	2	1	2	-	-	-	6
	나가토노쿠니(長門国)	2	-	2	1	3	-	-	-	8
소계	16	1	17	8	32	2	4	1	81	
산인도 (山陰道) (5.8%)	오키노쿠니(隱岐国)	2	-	1	-	1	-	-	-	4
	이와미노쿠니(石見国)	2	-	1	1	-	-	-	-	4
	이즈모노쿠니(出雲国)	1	1	-	-	1	-	-	-	3
	호키노쿠니(伯耆国)	1	1	1	1	-	-	-	-	4
	이나바노쿠니(因幡国)	-	1	1	1	2	-	-	-	5
	다지마노쿠니(但馬国)	2	1	1	1	5	-	1	-	11
단고노쿠니(丹後国)	1	-	4	-	2	-	-	-	7	

〈표 3〉 『내국여행 일본명소도회』의 지역별 삽화 내용(계속)

지역	자연			인공			온천	기타	합계
	산	강·호수	바다	거리	건축	생활			
(계속)	단바노쿠니(丹波国)	3	-	-	1	3	-	-	7
	소계	12	4	9	5	14	-	1	45
난카이도 (南海道) (8.2%)	기이노쿠니(紀伊国)	11	-	5	-	5	2	3	26
	아와지노쿠니(淡路国)	-	-	3	-	2	-	-	5
	아와노쿠니(阿波国)	4	-	4	-	3	-	-	11
	사누키노쿠니(讃岐国)	4	-	3	-	2	2	-	11
	이요노쿠니(伊予国)	1	-	1	-	1	1	2	6
	도사노쿠니(土佐国)	-	-	3	1	-	1	-	5
	소계	20	-	19	1	13	6	5	64
사이카이도 (西海道) (8.2%)	지쿠젠노쿠니(筑前国)	-	-	1	-	4	-	-	5
	지쿠고노쿠니(筑后国)	1	2	-	-	-	-	-	3
	부젠노쿠니(豊前国)	4	-	-	1	1	-	-	6
	분고노쿠니(豊后国)	2	-	3	2	-	-	2	9
	히젠노쿠니(肥前国)	2	-	3	-	4	1	-	10
	이키노쿠니(壱岐国)	-	-	1	-	-	-	-	1
	쓰시마노쿠니(对马国)	-	-	4	-	-	-	-	4
	히고노쿠니(肥后国)	2	1	1	2	3	-	-	9
	휴가노쿠니(日向国)	1	-	2	-	1	-	-	4
	오스미노쿠니(大隅国)	-	1	1	-	1	-	-	3
	사쓰마노쿠니(薩摩国)	1	-	2	1	2	-	-	6
	슈난(州南) 열도	-	-	-	-	1	-	-	1
	류큐(琉球) 열도	-	-	1	1	1	-	-	3
소계	13	4	19	7	18	1	2	64	
총계	157	49	126	96	276	24	31	778	

- 주 1) 『内国旅行 日本名所図会』(1)·(2), 『シリーズ明治・大正の旅行 第1期 旅行案内書集成』第3卷·第4卷, ゆまに書房, 2013을 토대로 작성했다.
- 2) 1869년에 실시된 보신(戊辰)전쟁 전후 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데와노쿠니(出羽国)는 우젠노쿠니(羽前国)·우고노쿠니(羽后国), 무쓰노쿠니(陸奥国)는 이와키노쿠니(磐城国)·이와시로노쿠니(岩代国)·리쿠젠노쿠니(陸前国)·리쿠추노쿠니(陸中国)로 분할되었다. 참고로 이때 분할되고 남은 지역을 이전의 명칭과 구분하기 위해 리쿠오노쿠니(陸奥国)로 표기했다.
- 3) 에조치(蝦夷地)·에조노쿠니(蝦夷国)·기타슈(北州) 등으로 불리던 지역은 1869년에 행정명을 홋카이도(北海道)로 제정했다. 이는 오기칠도(五畿七道)를 고려한 명칭이다. 홋카이도의 추가로 1871년 폐번치현이 실시될 때까지 근대 일본의 지방 행정구획은 오기팔도(五畿八道)였다. 이때 홋카이도를 구분하기 위해 오시마노쿠니(渡島国) 등 11개의 구니(国) 명칭을 사용했다. 참고로 홋카이도의 구니명은 1882년 개척사가 폐지되고 하코다테 현(函館県), 삿포로 현(札幌県), 네무로 현(根室県)이 설치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서 도리이는 더는 신사가 아니라 일본의 상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도리이가 일본을 상징하는 기호로 인식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사의 서열화 못지않게 천황제 내면화에 큰 역할을 한 풍경은 진무천황(神武天皇)을 비롯한 역대 천황릉이다(〈그림 17〉). 근대 천황제의 핵심은 ‘만세일계’에 있었으므로, 역대 천황릉은 천손강림신화를 시각화하는 핵심적인 풍경이다. 물론 에도시대의 ‘~명소도회’, 특히 지금의 나라(奈良)에 해당하는 『아마토명소도회』에는 천황릉에 대한 설명과 삽화가 다수 등장한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어느 곳에 있는지, 석총(石塚) 등 지역에서 불리는 별칭을 간략히 적고 있을 뿐이다(〈그림 18〉). 진무천황릉도 “시조무라(四條村)에 있고, 사묘(祠廟)는 오쿠보무라(大窪村)에 있다. [능고(陵考)에] 따르면 자(字)는 쓰카야마(塚山)라 한다”라고 간단히 적고 있으며, 추가로 제시된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서도 “향년 137”, “진무천황 재위 76년 3월, 가시하라궁(橿原宮)에서 돌아가심. 127세, 이듬해 이 능에 모심”이라고 간단히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²⁹ 이에 비해 『일본명소』의 진무천황릉 설명은 다음과 같다.

진무천황릉은 나라에서 6리(里) 정도 떨어진 다카이치군(高市郡) 시조(四條) 우네비산(畝傍山) 동북쪽에 있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우뚝 솟은 묘릉이 장관이다. 신대(神代)의 뒤를 이은 진무천황은 동정(東征)하시어 중원을 통치하시니, 이로써 왕도흥치의 미가 창건되었다. 우리 왕조[我朝]의 군신(君臣)이 영원히 존신(尊信)해야 하는 묘릉(廟能)이다. 그 시작은 휴가(日向)지만, 동정하신 후 아마토노쿠니의 가시하라궁에 정착하셨다. 이에 야마토[大倭]는 히노모토[日本]의 총칭으로서 분국(分國)의 명칭도 여기에서 기원한다.³⁰

29 原田幹 校訂, 『大和名所図絵』全, 大日本名所図会刊行会, 1919, 532~533쪽.

30 上田維暁, 『内國旅行 日本名所圖繪』第1卷, 青木嵩山堂, 1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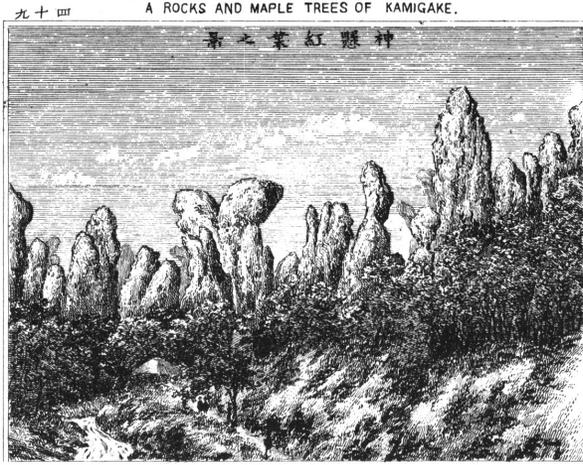
〈그림 17〉 진무천황(神武天皇)을 비롯한 역대 천황릉 ('일본명소' 제1권, 108쪽)



〈그림 18〉 석총(石塚) 등 지역에서 불리는 별칭을 간략히 적고 있는 천황릉(原田幹校訂, 『大和名所図繪』全, 大日本名所図会刊行会, 1919, 186~187쪽)

에도시대 ‘~명소도회’가 진무천황릉이라는 메이쇼에 대한 객관적 정보만을 제공할 뿐, 이곳과 관련된 기기(記紀) 신화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일본명소』는 진무천황릉의 위치 정보와 함께 ‘우리 왕조의 군신이 영원히 존신해야 하는 묘릉’, 즉 장소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1880년대 들어 본격화된 정부의 천황릉 관리정책을 배경으로 한다.³¹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으로 에도시대에는 각 지역의 여러 메이쇼 중 하나였던 장소가 이제는 ‘영원히 존신해야 하는 묘릉’으로 그 의

31 高木博志, 『近代天皇制の文化史的研究』, 校倉書房, 1997, 266~27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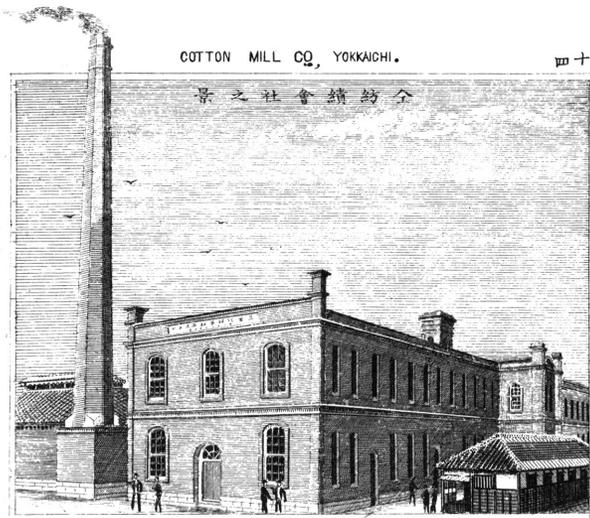


〈그림 19〉
천황제를 내면화하는 풍경
〔일본명소〕 제7권, 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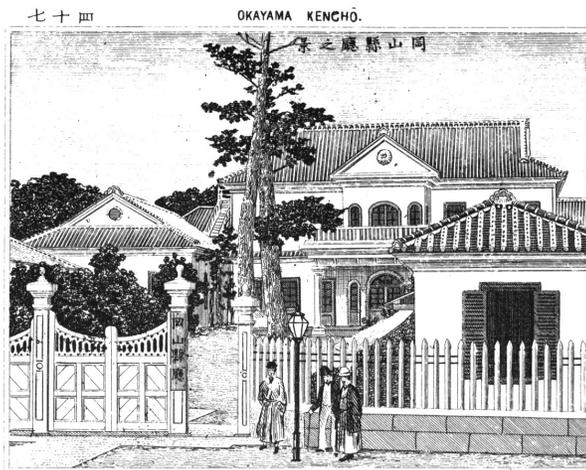
미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진무창업’(神武創業)이라는 메이지시대의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이제 진무천황을 필두로 한 천황릉은 각 지역에서 천황제를 시각화함으로써 지역 주민 또는 방문자로 하여금 천황제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정치적 풍경으로 재규정되고 있는 것이다.³²

천황제를 내면화하는 풍경은 자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누키노쿠니(讃岐国)에 있는 가미가케(神懸)의 단풍을 “난카이(南海)의 승경(勝景)”이라 기술하면서 오진천황(応神天皇)의 고사를 설명하고 “1890년 4월 말(메이지-필자) 천황 폐하의 임행(臨幸)이 있었다”고 추가 기술하고 있다(〈그림 19〉). 여기에서 ‘난카이의 승경’이라는 표현이 단풍이 아름다운 메이쇼로서의 가미가케를 기술한 것이라면, 오진천황이나 메이지천황의 ‘임행’을 추가 기술한 것은 가미가케의 단풍은 천황이 방문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자연 풍경에는 천황이 방문한 곳과 방문하지 않는 곳, 즉 천황을 매개로 한 자연 풍경의 서열화가 등장한다.

32 지역 주민의 천황제 내면화는 1887년에 지역 주민이 발의하고, 1890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 관폐대사로 창건된 가시하라신궁(橿原神宮)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시하라신사는 진무천황과 그의 황후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기에, 홈페이지에서도 ‘일본의 원점’이라 선전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가시하라신궁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사다(<http://www.kashiharajingu.or.j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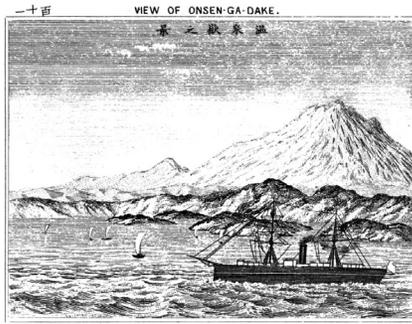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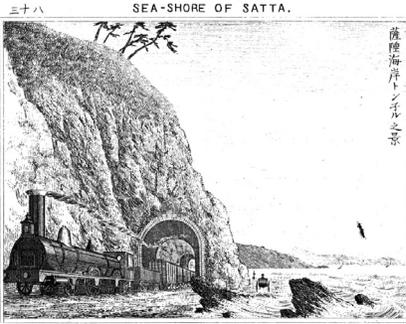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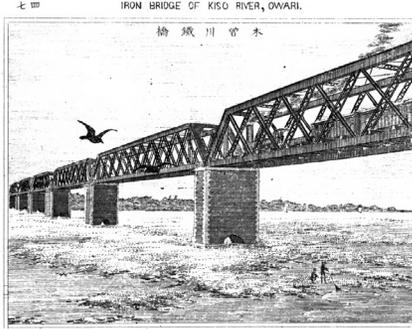
〈그림 20〉 근대적 산업시설을 근경으로 포착한 삽화
 (『일본명소』 제2권, 14쪽)



〈그림 21〉 근대적 관공서를 근경으로 포착한 삽화
 (『일본명소』 제6권, 47쪽)

이상과 같이 『일본명소』에서 발견된 풍경 중 하나는 천황제와 관련된 시각적 장치이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은 천황제를 공유하는 동일한 ‘일본인’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일본명소』의 건축 풍경 중에는 근대적 산업시설과 관공서를 근경으로 포착한 삽화도 여럿 있다(〈그림 20〉, 〈그림 21〉).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풍경 그대로 묘사한 삽화가 대부분인 산, 강/호수, 바다의 경우 도 산의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 기차가 철교나 해변 터널을 달리는 장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증기선이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한 삽화가 다수 존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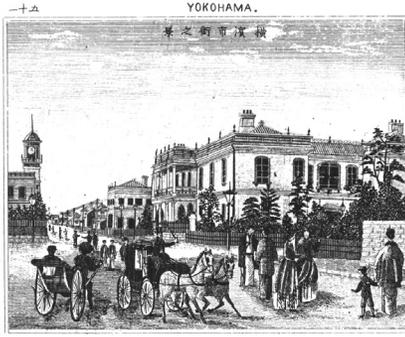
22	23
24	25

〈그림 22〉~〈그림 25〉 산의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 기차가 철교나 해변 터널을 달리는 장면,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증기선이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한 삽화(그림 22: 『일본명소』 제5권, 3쪽, 그림 23: 제2권, 47쪽, 그림 24: 제2권, 83쪽, 그림 25: 제7권, 1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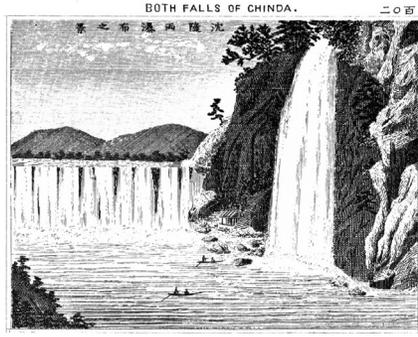
다는 사실이다(〈그림 22〉~〈그림 25〉). 이것은 자연 풍경에서도 메이지시대의 슬로건인 문명개화 및 식산흥업을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일본명소』는 서양식 건물과 마차, 인력거 등이 등장하는 도시(〈그림 26〉)는 물론이고, 자연에서도 메이지시대의 ‘문명’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라 할지라도 분고노쿠니(豊後国)의 진다(沈墮) 폭포(〈그림 27〉)를 “그 장관이 나이가가라 폭포와 비슷하다”³³고 평가하고 있듯이, 서양의 자연 풍경과 비교함으로써 그 풍경의 가치를 재규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메이지시기에 ‘일본’ 영토로 편입된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서는 어떤 풍경을 발견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눈에 띄는 풍경은 도리와 국화 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초혼사’의 풍경이다. 이것은 ‘내지’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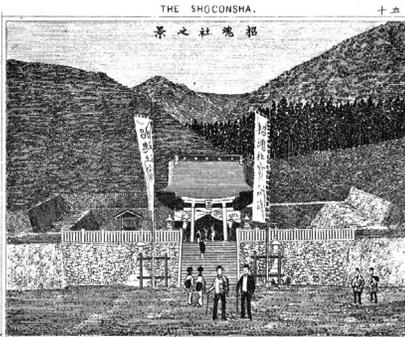
33 『일본명소』 제7권, 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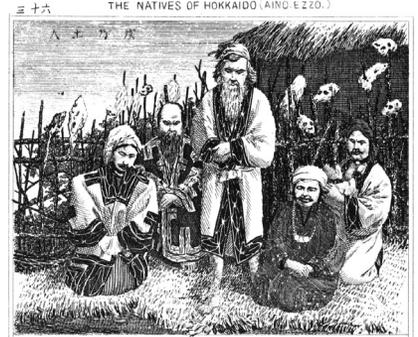
〈그림 26〉 양식 건물과 마차, 인력거 등이 등장하는 도시(『일본명소』 제3권, 51쪽)



〈그림 27〉 분고노쿠니(豊後国)의 진다(沈瀧) 폭포(『일본명소』 제7권, 1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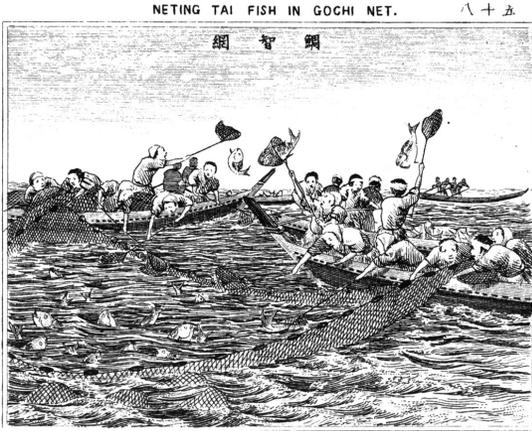
〈그림 28〉 도리이와 국화 문양을 세밀하게 묘사한 '초혼사의 풍경'(『일본명소』 제5권, 50쪽)



〈그림 29〉 아이누를 묘사한 삽화(『일본명소』 제5권, 63쪽)

일한 풍경이다(〈그림 28〉). 하지만 아이누를 묘사한 삽화에는 배경에 해골이 등장하고, 본문에서도 “개화되지 않은 인민”으로 “언어와 풍속이 우리 내지와 매우 다르다”고 서술되어 있다(〈그림 29〉). 여기에서 원주민들은 생활/노동하는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라 독자에게 자신들을 보여주듯 옆으로 늘어서 있다. 이 삽화를 바라보는 독자는 해골 등으로 시각화된 미개한 ‘원주민’과 거리를 유지하는 문명인의 시선을 지닌 내지인이 된다. 홋카이도의 ‘원주민’이라는 미개한 타자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문명개화한 자신을 내지인, 즉 일본인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명소』에서 ‘내지’의 경우는 삽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결코 독자를 향해 있지 않다(〈그림 30〉 참조).

홋카이도에 대해서는 문명의 시선이 존재하지만,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그림 30〉 독자를 향해 있지 않은 인물의 시선(『일본명소』 제7권, 58쪽)

나하(那覇) 항구와 슈리성(首里城) 전경이 제시되고, 본문에서도 ‘1879년에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는 설명 등이 기술되어 있을 뿐 류큐인(琉球人)에 대한 이미지나 설명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나오며

이 글에서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출판된 『일본명소』(전 7권)를 통해서 메이지시대에 ‘발견’된 일본 풍경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근대일본의 풍경을 ‘발견’했다고 평가받는 시가 시게타카의 『일본 풍경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우선, 『일본명소』에서 ‘발견’된 메이지 일본 풍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황을 매개로 하는 여러 풍경이 등장하고 있다. 서열화된 신사와 천황릉은 ‘만세일계’라는 근대 천황제의 핵심적 이데올로기를 투영시킨 풍경으로 등장하고, 이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독자들은 천황제를 공유하는 동일한 ‘일본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메이쇼적 특징을 지니는 아름다운 풍광은 천황과 관련된 곳과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구분됨으로써 ‘일본’ 풍경을 서열화하게 된다.

둘째, 메이지시대의 국가 차원의 슬로건인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을 구현

한 풍경에 주목하고 있다. 문명개화와 식산흥업을 구현하는 풍경으로 도시의 서양식 건물이나 공장의 풍경만이 아니라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을 배경에도 철도와 증기선 등과 같은 근대적 교통수단을 배치함으로써 ‘전일본’에서 문명개화의 풍경을 발견하고 있다.

셋째, 홋카이도와 같이 메이지시대에 ‘일본’ 영토로 편입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까지나 ‘일본’ 속에 존재하는 타자로 시각화된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일본명소』는 일본이라는 공간을 구니로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에도시대의 분절적 영토 인식을 온존하고 있는 한편, 후지산이나 비와호를 비롯한 일본의 자연을 수치화함으로써 서열화하고 있다. 『일본명소』의 풍경들은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과학적으로 일본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명소』는 단순한 여행안내서가 아니라, 시가의 『일본풍경론』이 발견한 ‘일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심상지리서였다.